

운봉자연치유센터 이야기

김 경 수(목사, 운봉자연치유센터 원장)

저희 센터는 암이나 성인병, 아토피 같은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자연치유를 돕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대의학적 치료에서 본다면 암환자나 아토피 환자, 고혈압 환자 등의 상태도 다르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자연치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고 그 자연 속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자연치유력을 깨워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이 신앙을 흔들리게 만든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육체의 질병, 특히 암이라는 질병이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하듯이 저 또한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의 아픔도 신앙으로 이겨 나가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힘주어 설교했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아픈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환우들의 아픔을 마음 깊이 공감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암이라는 질병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 즉 전인건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작은 처형이 대장암에 걸리게 된 후부터 시작됩니다. 처형은 언제부터인가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같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 보고 약도 먹어 보고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개월 정도 지나도 허리 아픈 것이 낫지 않아서 조금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했더니 대장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변비도 심했었고 가끔 혈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서울아산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중에 암이 급속도로 퍼져서 수술하지 못하고 항암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암에 대해 무지했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다 알아서 치료해 주는 줄 알고 있었었습니다. 1차 항암 3개월 정도 하고 난 후에 검사해 보니 암이 더 퍼져서 간과 폐에까지 침투해 있었고 급속도로 몸무게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차 항암까지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매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질병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니던 C3TV 방송국을 사임하고 낮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밤에는 혼자 교회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는 함께 예배드리고 힘을 내는 것 같았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정신이 혼미해 질 때면 예배드리는 시간도 귀찮아했습니다. 그렇게나 견고해 보이던 믿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 있을 때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제는 주로 건강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고 힘들 때는 몇 번 위로의 만남이 있지만 그 아픔을 나의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결국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암과 같은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마음과 육체를 돌보아 주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하고 사랑받는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환자의 안식처, 지리산 운봉자연치유센터

센터가 위치한 곳은 지리산 전체로 보면 북쪽에 해당되는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1,170m인 정령치 아래 백두대간의 주요 길목인 고기삼거리 해발 590미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치유사역을 배우고 있던 중 우연히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기신 두 암환자분의 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지리산 자락에 치유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 지리산 자락 운봉은 옛 문헌에 십승지(十勝地) 중에 한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난리를 피할 수 있고 가난과 질병이 미치지 않는 땅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꿈에도 그리는 안식처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도피처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보복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곳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부지중에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운봉자연치유센터가 그러한 사람들의 도피처와 안식처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환우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생명을 회복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운봉자연치유센터 사역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때부터 이미 마음과 몸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 전부터 내재해 있던 상처들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몸은 수술이나 항암으로 인해 자연치유체계가 훼손되어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의 증상은 국소적으로 나타나지만 항상 몸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술 등을 통해 어느 한 부위의 증상이 제거된다고 해도 몸 전체의 면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과 생활전반에 걸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몸의 생체리듬이 깨어나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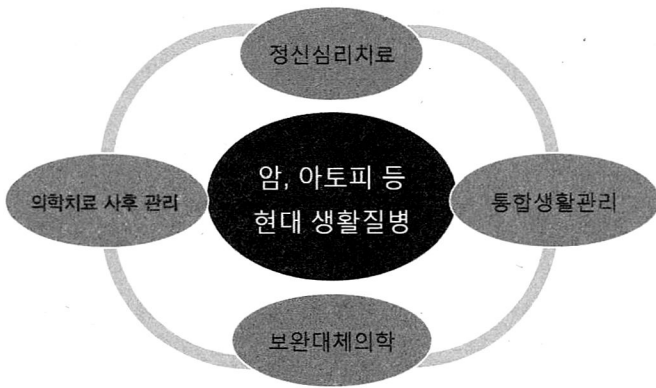
저희 센터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암이나 아토피, 성인병 환우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한 섬김 사역입니다. 환우들의 편의를 위해 1인 1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건강식단을 제공하고 치유프로그램을 통하여 회복이나 치유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사역입니다.

둘째로 건강한 삶을 위한 태초 먹거리 나눔 사역입니다. 우리 몸의 질병 대부분이, 심지어는 마음의 병도 잘못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은 올바른 먹거리 생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연에서 채취하고 텃밭에서 기르거나 생협에서 먹거리를 공급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센터 주변 농민들과 연합하여 정직한 먹거리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2014년부터는 유기게르마늄 효소를 채소와 과일에 살포하여 생산할 계획입니다. 게르마늄 함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드시는 분들의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나눔 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계절에 따라 유기농으로 재배하거나 지리산에서 채취한 무공해 먹거리를 정기적으로 함께 나눔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치유프로그램 소개

발견된 암 부위만을 제거하는 일차적 치료로 재발과 전이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암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생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암의 발생요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 영적, 정서적, 육체적, 관계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야만 온전한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과 같은 질병이 걸리면 “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 생활하다가 발생한 질병이기에 삶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몇몇 보조제로 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운봉자연치유센터는 인간의 생체리듬이 가장 활성화되는 해발 550미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자연치유센터의 통합적 치료프로그램

1) 의학치료 사후 관리

현대 의학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를 말합니다. 의학치료를 어떻게 받을지 상담하고 치료 전후의 관리를 해 드립니다.

2) 정신심리 치료

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질병의 발생 제1원인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

니다. 정신심리치료는 정서적 안정 상태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희망과 긍정의 생각을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안정되고,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돌핀, 다이돌핀 등의 호르몬이 생성되어 치유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① 힐링코드 : 인체의 호르몬을 관장하는 네 군데의 중요 부위에 손가락으로 에너지를 넣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항상성을 유지시킴으로 마음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② 심상요법 : 우리 마음의 구조 및 내용 등을 체험적 심상을 통하여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심상치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마음 털어놓기 : 환우들 사이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교감을 형성하는 것은 큰 치유의 힘이 됩니다.

④ 예배와 치유, 중보기도 :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그리고 창조질서와 단절된 마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3) 통합생활관리

① 식이요법 : 먹는 식단을 바꾸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와 유기농으로 키운 야채를 섭취함으로써 체질을 변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② 자연요법 : 살아있는 물을 마시고 깨끗한 산소를 호흡하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③ 운동요법 :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숨차게 운동함으로 몸을 깨우고 근력을 키우며 면역력을 높이는 요법입니다. 운동은 몸의 회복에 있어서 해독, 온열, 근력 키우기, 긍정적인 생각 등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저희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산행, 발목펌프운동, 건강체조, 근력운동입니다. 특히 소나무 군락지인 지리산에서의 산행은 몸의 회복속도를 훨씬 빠르게 도와줍니다.

4) 보완대체의학

① 분자교정요법 : 인체의 생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수 영양물질들을 보충함으로써 분자를 정상화시키는 요법입니다.

② 장 활성화 및 해독요법 : 면역의 많은 부분이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의 면역력을 회복하면 질병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를 위해 풍욕, 냉온욕, 거슨관장요법, 해독주스, 단식요법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온열치료 : 암을 저체온병이라고도 합니다. 암환자의 대부분은 정상 온도보다 1도 정도 체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또한 암은 42도가 넘는 상태가 되면 사멸된다고 합니다. 몸 안에 열기를 주입함으로써 병소를 제거하고 생체리듬을 깨우는 치료입니다. TDP, 썬뎀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으며 효소핍질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미래를 여는 행복마을

암환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암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암을 수술로 제거하고 회복되어 살아가는 암환자들도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때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암이 재발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농촌으로 내려와 집을 짓고 휴양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휴양의 삶을 선택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도시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몸에 암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오랜 투병 기간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여 요양병원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의 재활과 치유를 돕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암환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들

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적 삶을 살아가는 단계를 넘어서 함께 살아가며, 몸도 회복하고, 서로 도움을 주며, 기본적인 경제적 소득도 창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표고버섯, 양계, 쌈채소, 약용식물 등 환자들에게 필요하고 비교적 큰 육체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여력이 되면 암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겸하여 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구상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뜻을 같이하는 암환자들과 동역자들이 모여 암환자 행복마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❷